



항일여성

12호 2023년 2월 발간

일제강점기 독립을 촉구하면서 반포된 격문은 1919년 '3·1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뿐만 아니라 각종 청원서까지 1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독립 의지를 떨쳤을 뿐 아니라 순 한글로 작성하고, 대표적인 애국자로 기생들을 호명해 신분 고하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평등의 정신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향일여성 12호에는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전문'을 실어 그 시대의 외침과 다짐을 새롭게 조명코자 합니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전문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동포시여 우리나라 이 반만년 문명역사와 이천만 신성민족으로 삼천리 강토를 족히 자존할 만 하거늘 침략적 야심으로 세계의 공법 공리를 무시하는 저 일본이추세적 만성으로 조국의 흥망이해를 불고하는 역적을 협동하여 압박수단으로 형식에 불과한 합방을 성립하고 제반 음독한 정치 하에 우리 이천만 형제자매가 노예와 희생이 되어 천고에 씻지 못할 수옥을 받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스스로 멸망할 합정에 가쳐서 하로가 일년 갓흔 지리한 세월이 십여년을 지나스니 그 동안 무한한 고통은 다 말할 것 업시 우리 동포의 마음속에 품은 비수로써 징거할 바로다

필부함원에 오월비상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수천만 창생의 억울 불평한 애소를 지공무사하신 상제께서 통촉하심이 업스리요 고금에 업는 구주대전란의 결국에 민본적 주의로 만국이 평화를 주창하는 금일을 당하여 감사하신 남자사회에서 처처에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 한 소리에 엄동설한의 반도강산이 양춘화풍을 만나 만물이 소생할 시기가 이르렀스니 아모조록 용력 위에 일층의 용력을 더하고 열성 중에 일도의 열성을 더하여 유시유종 하시를 혈성으로 기도하는 바오며 우리도 비록 규중에서 생활하여 지식이 몽매하고 신체가 연약한 아녀자의 무리나 국민됨은 일반이오 양심은 한가지라 용력이 절등하고 지식이 고명한 영웅달사도 뜻을 달하지 못하고 억울이 이 세상을 마친 자 허다하거마는 비록 지극히 몽매한 필부라도 성력이 극도에 달하면 반다시 원하는 거슬 일우난 거슨 소소한 천리라

우리 여자 회에서도 동서를 물론 하고 후생의 모범될 만한 숙녀현원이 허다하거마는 특별히 금일에 우리의 본바들 선생을 들어 말하면 서양 사파달이라 하는 나라에 사리라 하는 부인은농가에 출생으로 아들 여덟을 나아 국가에 바쳤더니 전장에 나가 승전은 하였스나 불행이 여덟 아들이 다 전망한지라 부인은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조곰도 슬퍼하지 안이하고 춤추며 노래하여 가라대 사파달 사파달아 내 너를 위하여 여덟 아들을 나았다 하며 의태리에 메리야라 하는 부인은 청누 출신으로 의태리가 타국의 절제 하에 잇슴을 분개히 녀여 재정방침을 연구하며 청년사상을 고취하여 백절불회하는 지기와 신출귀몰 하는 수단으로 마침내 독립전쟁을 개시하였스나 불행하여 열렬한 뜻을 다 일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영별할 때에 감은 눈을 다시 뜨고 제군 제군아 국가 국가라는 비장한 유언에 삼군의 격렬한 피가 일시에 끌어 죽기로서 맹서하여 의태리의 독립이 그날로 되었스며 우리나라 입난 때에 진주에 논개씨와 평양에 화월씨는 또한 화류계 출신으로 용력이 무쌍한 적장 청정과 소섭을 죽여 국가를 다시 붓든 공이 두 분 선생의 힘이라 하야도 과언이 안이니

우리도 이러한 급한 때를 당하야 겁나의 구습을 파괴하고 용감한 정신을 분발하야 이러한 여러 선생을 본바다 의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력의 방패와 열성의 비수를 잡고 유진무퇴하는 신을 신고 일심으로 이러나면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우리나라 총혼 열백이 명명 중에 도오시고 세계만국의 공논이 업지 아니할 거시니 우리는 아모 자저할 것 업스며 두려할 것도 업도다 사라서 독립기 하에 활발한 신국민이 되어 보고 죽어서 구천지하에 이러한 여러 선생을 조차 수괴합이 업시 즐겁게 모시는 거시 우리의 제일 의무가 아닌가 관장에서 솟는 눈물과 충곡에서 나오는 단심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대한 동포에게 엮드려 고하오니 동포 동포여 때는 두번 이르지 안이하고 일은 지나면 못하나니 속히 분발할지어다 동포 동포시여

대한독립만세



항일여성

2023년 2월 발간/제12호

- | 02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전문
- | 04 인사말
- | 06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기념식 및 연천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식
2022 문화예술 공모전
 - 제5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대회 수상작
 -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수상작
 -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UCC 공모전 수상작
 - 공모전 참가자들이 남긴 이야기들
- | 20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학술심포지엄
 <부부독립운동가 열전>
- | 23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문화유적지 답사
 - ‘항일에서 통일로’ 유적지 답사
 - [소감문] ‘혁명전야’ 속의 내포, 내포치들
- | 29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 학술심포지엄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 재조명>
- | 30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 2022 연천 종합사회복지관
 - 2022 서울여대
 - 2022 고양시 능곡살롱
- | 34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소은명·소은숙 자매 삽화 제작
- | 36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훈 추서자
- | 38 2023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나아갈 길
- | 39 후원회원 명단

발행일 2023년 통권 2월 발행인 김희선 디자인·인쇄 선진인쇄사
 발행처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02579)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사숙재회관 402호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 02) 924-0550 메일 herstory@herstroykorea.org

인사말



이사장 김희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팬데믹을 겪는 중에도 여지없이 봄은 찾아와 새롭게 일어서는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함께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도 우리 회원들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변화, 성장하고자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첫 출범 후 어느덧 9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 기념사업회는 더 많은 이들에게 기억 속에서 잊힌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살아있는 역사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올바른 역사의 이해와 통찰로 현재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를 살피고, 잊힌 선열의 정신을 발굴, 계승함으로써 굳건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발판을 준비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처음 출범 당시만 해도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미미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분이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아 추서되었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도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이 재조명되며 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전체 유공자의 3.2%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예술 공모전을 마무리하며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만 보아도 여전히 여성독립운동가라면 오로지 유관순 열사 한 분만 계신 경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단 한 명이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억압에 맞서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름 없이 잊혀져 간 분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삶이 지금, 여기,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일은 곧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항일여성 12호는 지난 2022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 참여가 불가피하게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대신, 유튜브 영상 채널 <항일여성 TV>를 통해 영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연천에서 진행된 광복 77주년 기념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인 “오늘 그들 여기에”는 연천 출신인 소은명, 소은숙 지사를 기리며 항일독립여성상 제막식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학술심포지엄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 재조명>은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을 지역별로 나누어 비교 검토,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경기)부터 강원도, 광주 전남, 충청, 경북, 그리고 부산(경남) 지역의 여성독립운동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별 여성독립운동을 비교 분석, 고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한국 근대사 안에 항일여성독립운동사의 자리매김을 더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과 활동이 오늘의 한국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에게도 훌륭한 역사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항일문화유적지 답사 <항일에서 통일로>는 국내 역사 유적지 가운데 서울지역 경기 북부 지역, 충남 지역으로 나누어 전국에 산재한 항일의 역사를 직접 발로 찾아가 보는 기회가 되었고, 연천군종합복지관, 서울여대, 고양시 능곡살롱에서 진행된 초상화 전시회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초상을 가까이서 만나게 됨으로써 그들의 독립 정신을 피부로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진행형인 팬데믹의 종료 선언을 기대하며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모든 도전을 더욱 깊이 있게 진행 하고, 적극적인 회원 확대를 도모하며 회원들과의 밀접한 관계 회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결국 그 끝이 사람이고, 희망입니다.

창립 초부터 함께 애써주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신영숙 소장님 외 여러 이사님들께는 항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한 역사의식과 자부심 있는 역사 정신을 만들어 전하는데 함께 일조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하나로 뜻을 모아주시는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단체의 활동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해주심에 지금의 성과가 도출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검은 토끼의 지혜로움과 탈토지세(脫口之勢)의 실행력으로 크게 한걸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광복 77주년 기념 제8회 추모문화제 기념식 및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식 오늘 그들 여기에

2022년 8월 11일에 열린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기념식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연천에서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 연천 출신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인 소은명·소은숙 자매의 뜻과 정신을 기리고자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제막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제8회 추모문화제 사전 영상은 유튜브채널 항일여성TV(www.youtube.com/c/항일여성TV)에 업로드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걸어온 길을 알려내고 잊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천군

항일독립운동여성상 건립 취지문



1920년 3월 1일 고요한 새벽, 두 여학생은 빨래를 거는 척하고 배화여고 뒷산 필운대 산에 오른다. 그순간 약속되어 지키고 있던 40여명의 여학생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필운대에서 고요한 장안을 향하여 목청껏 대한독립만세를 모두가 외쳤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 만세 소리는 일제 식민지 세력에게 허를 찌르는 전율의 함성으로 온 장안에 울려 퍼졌다.

이에 놀라 급히 출동한 일본 경찰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배화여고 학생들을 순식간에 잡아채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가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화여고 학생들은 두려움 없이 유치장 안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쉬도록 계속 외쳐 포악스럽게 말리는 일본 경찰들의 기를 꺾었다.

오늘 여기...

일제의 만행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연천의 여성독립운동가, 소은숙, 소은명 자매의 항일투쟁 정신과 그들의 이름을 억만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배화여고 학생들의 항일투쟁 정신과 뜨거운 나라사랑 숨결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온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엄중한 역사의 요구에 조국의 앞날에 밝은 등불이 되고자 했던 10대 소녀들의 아름다운 투쟁!

“1920년 3·1 만세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항일투쟁 정신으로 오늘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을 이곳, 연천군에 세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연천군민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그들 여기에’ 연천이 낳은 여성독립운동가, 소은숙, 소은명 자매를 기억합니다.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문화예술 공모전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문화예술 공모전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기려는 다양한 세대의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묻혀있던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자랑스런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던 본회의 공모전에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초상화, 랩대회, 독백대회 외에도 2021년도에 신설했던 UCC(동영상) 부문까지 총 4개 부문에서 진행하였고, 각계에 종사 중인 심사위원들이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요소, 주제의식을 모두 고려해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지원하였으며, 수상자들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UCC공모전에서는 중학생 친구들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젊은 층의 호응이 어느 해보다 높았습니다.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예술공모전 시상식은 2022년 11월 2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관 시청각실에서 열렸으며, 수상자들과 지인, 회원들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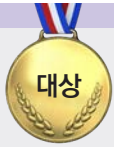
올해 열릴 제9회 추모문화제<오늘 그들 여기에>와 문화예술공모전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수상자 명단 (입선 부문 제외)

분야	구분	수상자
제5회 랩 대회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류현도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수상자 없음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전진우, 박범진
제3회 초상화 공모전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수상자 없음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홍옥주, 김윤경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남희민, 이지원, 박상우, 송홍익
제2회 UCC 공모전	항일여성의병장상 (대상)	선을넘는녀석들 팀 (신민서·송하나·최성우)
	항일애국부인회상 (최우수상)	김이현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우수상)	오승아, 김가연·김지아, 동희식



제5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대회 수상작



대상

항일여성의병장상 류 현 도



감상하기

작품소개

"이번 곡을 만들면서 남녀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 독립여성운동가분들의 입장과 현대 저희의 입장에서 들었던 감정과 느낌을 적어보았으며, 한국적인 배경음악을 선택하고 싶어서 거문고 소리가 들어있는 비트를 찾아서 작업해봤습니다.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모든 독립여성운동가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대한민국의 자녀
우리들이 있다는 걸 저 멀리 알려
총 소리가 아닌 목소리
우리가 쓰러져도 내 손은 더 높이
총이 아닌 목을 장전해 발사
오늘도 어제의 상처를 감싸 안아
오직 우리나라를 위해서 난 살아
날 지켜봐라 똑똑히 말야
내겐 없었다네 큰 소리를 낼 자격이
허나 독립을 위해 낸 목소리 기꺼이
나는 떠나가지 않아 우리 살 곳이
여기 있잖아 우린 그저 나아가네
keep going
yeah 나의 땅 one and only
만세를 하며 외치네 대한 독립
우리들은 원하지 republic
적들에게 외쳐 우린 바로 korea
yeah 대한민국의 자녀
우리들이 있다는 걸 저 멀리 알려

대한 만세
만세
잊지않고 기억할게 그대들은
밤하늘의 빛 돼
만세
잊지않고 기억할게 그대들은
밤하늘의 빛 돼
만세
잊지않고 기억할게 그대들은
밤하늘의 빛 돼

나의 나라 우리 대만을 위해
이 시대에 남아아닌 여자로 태어나
차별마저 무시하는 해적단의
파라다이스
눈떠보니 재소자 더러운 감옥방
같은건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닐까

승리 패배 워너 없는 싸움
다음 세대 지켜줄게 다
없었지 대한 품었지 한
물려줄게 대한 끊어냈지 한

사라질건 남아아닌 나란사람만이
그걸로 만족하지 대한이 살았더니
피눈물로 무릎꿇고 기도했네
우리 대만을 외쳐뒀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슬픈 이유 하나 바칠 목숨 하나
내가 아닌 우리의 대만을 위해
끝까지 버티네 대만을 위해

하늘에 내 손이 닿게
우리의 목소리 닿게
우리의 염원이 닿게 만세

하늘에 내 손이 닿게
우리의 목소리 닿게
우리의 염원이 닿게 만세

내가 태어난건 남아아닌 시대인가
이건 대체 누굴위한 나라일까
같이줄게 이를 흘려줄게 피를
찾아줄게 다시 우리 대한이란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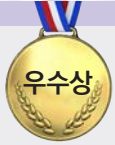
아름다운 당신들의 독립이란 꽃
지치않아 영원히 봄이지나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만세
만세
잊지않고 기억할게 그대들은
밤하늘의 빛 돼
만세
잊지않고 기억할게 그대들은
밤하늘의 빛 돼
만세
잊지않고 기억할게 그대들은
밤하늘의 빛 돼

나의 나라 우리 대만을 위해

- 대상 수상작 가사 전문

제5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창작 랩대회 수상작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전 진 우



감상하기



작품소개

“항일독립운동 당시 여성의 정신과 생각에 대해 상상하며 함부로 이야기를 쓰기엔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일독립운동 당시를 조사했고, 전쟁에서 이기거나 독립운동을 할 때 아리랑을 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곡을 만들고자 했고, 아리랑을 처음 접했던 제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1절)와 그 또래 아이들을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을 하는 여성의 마음(2절)을 시대를 넘어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이 곡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때를 상상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뚝 떨어진 땅 위에 꽃
동백의 빨간 12월
눈 뿌리고 놀던 정원 너머
그게 내 집이어
시간이 가는지도 몰라도
062 번호 올리면
덥썩 핸드폰을 열고서 멧썩게
반대로 몸 움직여

1 day 난 깨있던 밤
그릇 깨지는 소리
아반 죄없어 외치지 못했잖아 곡소리
no pain no gain
no gain owe pain
그댄 언제나 최고였고
들리지 한이 쌓인 작은 소리

아리랑 아이야
소리가 나면
멀찍이 뛰어
모래로 덮인 땅 넘어갔던
강아지 up and down 반기던 곳
끝났던 하루, 오늘

- 우수상 수상작 가사, 부분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박 범 진



감상하기

작품소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모르고 또 3.1절이 어떤 날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선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저도 조금 찾아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든 생각은 어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그들의 힘이 정말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 같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으로 쓴 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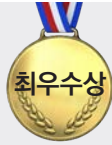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별세
가장 기억에 남지 유관순의 고생
적당한 못해 점령은 안돼
하나뿐인 나라 그들이 지켜주 총대
두려워도 외쳐 대한독립만세
하루 이틀하고 관동 게 아나 절대
떨었고 어렵고 희망도 못하나
떠나가는 조국 바라보며 비록 무력에 떨고

마음적으론 청사진 그렸지
현재 우리의 존재가 그들의 덕이래도
과연도 아니겠지 술까 난 runway
하지 말래도 뿌리친 그들은 또 해서
이겼고 지금의 이 나라가
세계 강국 중에 한 나라이기 전에
혹시 옆에있는자가 모름 전해
8월 15일 그날은 기억하제도

woah woah 그들을 위해 추모해
똑같은 맘은 힘들지라도 본반도록 해

- 우수상 수상작 가사, 부분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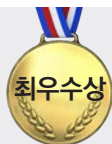
항일애국부인회상 홍 옥 주

작품소개

“이번기회를 통해 여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아보던 중 김명시 운동가를 알게 되었다. 김명시 운동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건국훈장 애국장 수여를 기념하는 의미로 작품을 그리게 되었다.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알려지길 바란다”.

| 김명시 지사(1907.5.15.~1949.10.03.) |

1925년 8월 경남 마산에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고, 동년 12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수학함. 1927년 6월 중국 상해에서 중국공산당 상해한인지부 선전부 책임 등으로 활동하고 동년 9월 상해한인청년동맹에 가입하여 부인부 책임으로 활동함. 1928년 6월 동방피압박민족반제대동맹을 조직하여 위원을 역임함. 1931년 11월경 중국공산당 한인지부 선전부 책임으로 활동하고, 동년 12월 상해한인반제동맹을 조직함. 1932년 1월 중국공산당 본부에서 활동하다 동년 3월 서울로 와 『코뮤니스트』 등 선전물을 인쇄,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6년을 받음.



항일애국부인회상 김 윤 경

작품소개

“우연히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문화예술공모전을 접하고 여러 여성운동가의 발자취를 찾던 중 한 여인의 강렬한 눈빛을 접하고, 그의 헌신적인 생애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정성이 있는 자는 정성으로” 이 말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여성의 몸으로 임시정부요인들의 고달픈 망명시절을 보살핀 정정화 선생의 헌신적이 삶을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 입술과 강인한 콧날,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강직함을 날카로운 눈동자에 표현해보았다”

| 정정화 지사(1900.08.03.~1991.11.02.) |

1919년 3.1운동직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김구, 이동녕을 도왔으며 1940년에는 한국여성동맹을 창립하였고 1943년에는 대한애국부인회의 재건, 조직에 참여하여 훈련부장으로 국내외 부녀의 총단결과 임시정부 옹호에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수상작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남 희 민

작품소개

“나라에 봉사하는 길은 여성도 공부하는 길이다. 여자라고 반드시 남성들에게 뒤지란 법은 없다. 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동등해야 한다. 공부하다 졸음이 오면 대한독립만세를 불러라.’ 이분에 대한 글을 읽고, 사진을 보았을 때 그때 그분의 열정이, 올곧음이, 단단함이 사진 속 눈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색과, 눈을 그리고 싶었다. 바다를 두르고 열정을 머금은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 강평국 지사(1900.06.19.~1933.08.12.) |

1919년 3월 1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기숙사 동기생 최정숙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시위행진을 하였고, 1924년 제주도 조천부인회 발기인, 1926년 제주여자청년회 집행위원, 1927년 일본 동경 동부노동조합 부인부위원, 1928년 근우회 동경지회 집행위원 및 정치문화부 위원 등으로 활동함.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이 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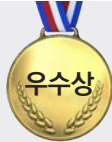
작품소개

“한계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조선 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이다.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드러운 품위가 느껴지는 눈빛과 기세를 초상화를 통해 표현해보았다”

| 현택신 지사(1896.01.12.~1962.11.27.) |

1919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조선여자친목회의 서기로 활동하고, 1920년 3월 1일 3.1절 1주년을 기념하여 동경 히비야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됨. 1927년 5월 서울에서 근우회 집행위원 및 정치부 위원에 선출되었으며, 1929년 6월 전남 광주에서 근우회 광주지회 설립에 참여함.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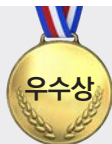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박 상 우

작품소개

“1920년 3월 1일, 배화여학교 뒷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된 성혜자 지사. 당시 일본 헌병 경찰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근대를 빙자해 위생, 토지, 교육 제도 등에 있어서 조선인들을 철저하게 피식민지인으로 상정한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시기’ 불운한 시대상을 초상화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당시 사회 각계각층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만큼 사회적 혼란이 감지되는 바, 화사하고 명량하기보다는 무게감 및 깊이감을 주고자 하였다.”

| 성혜자 지사(1904.08.27. ~ ?) |

1920년 3월 1일 서울 배화여학교 뒷산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송 흥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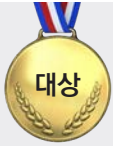
작품소개

“98년만에 독립운동을 인정받은 배화여학교 6인의 소녀 중 김경화 선생을 아크릴화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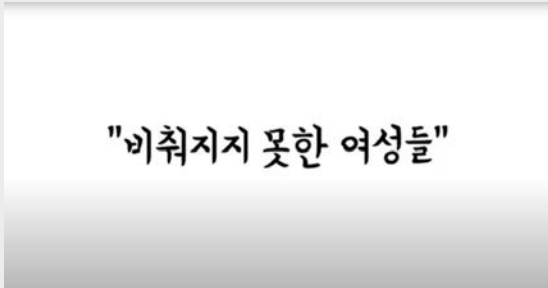
| 김경화 지사(1901.07.18. ~ ?) |

1920년 3월 1일 서울 배화여학교 재학 중 학교 뒷산에서 3.1운동 1주년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UCC 공모전 수상작



항일여성의병장상 신민서, 송하나, 최성우 “비취지지 못한 여성들”
(선을 넘는 녀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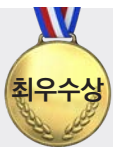


작품소개

“우리가 ‘독립운동가’하면 보통 폭탄을 투척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들을 있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던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분들 중, 오광심 열사, 남자현 열사 그리고 윤희순 열사를 소개하고자 UCC를 만들었습니다.”



감상하기



항일애국부인회상 김 이 현 “꽃으로 피어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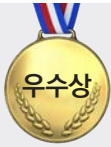
작품소개

“독립운동을 한 여성의 과거 회상을 주제로 제작한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영상입니다. Procreate 라는 아이패드 그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감상하기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UCC 공모전 수상작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오승아 “나는 누구일까요?”



작품소개

"백마탄 여장군으로 불리던 여성독립운동가 김명시 지사를 직접 그리고 녹음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상하기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김가연, 김지아 자매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아보아요!”



작품소개

"역사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매입니다. 얼마 전 백범 김구 선생과 운암 김성숙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 연구 조사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와 해외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가며 느낀 점, 알게 된 점.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을 위로하고 또한 같은 여성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독립운동가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둘 간의 대화로 진행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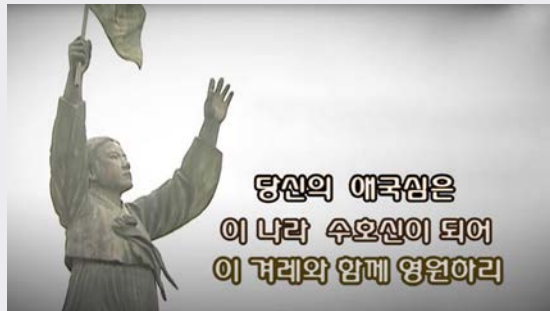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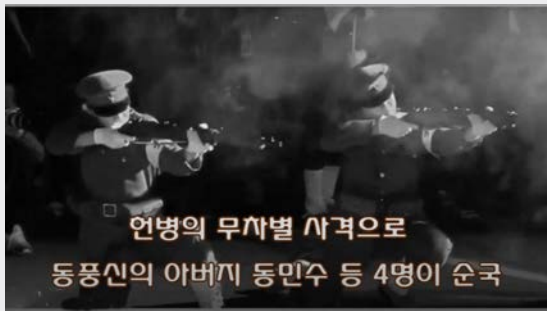


감상하기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UCC 공모전 수상작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동 희 식 “3.1운동 동풍신 열사”



작품소개

이번 공모전에서 최고령 지원자의 작품입니다. 북한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동풍신 지사의 삶을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공모전 참가자들의 소감문

초상화 부문 항일애국부인회상 수상자 홍 옥 주님 소감문

‘초상화로 생을 담다’

제 작업이 누군가의 얼굴과 감정 뿐 아니라 생의 스토리를 담았으면 했습니다. 제게 초상화 작업이란 그런 의미였고, 보는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닿기를 바랬습니다. 다양한 표현방식의 그림이 난무하고 초상화조차도 그런 시대에, ‘김명시 장군’ 초상화 작업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탄탄히 생김과 얼을 고증해내고 싶었으나 충분할 만큼의 이미지 자료의 부재 탓이 제일 컸습니다. 지나간 찰나가 아닌 숨을 가진 그녀를 끌어내 오늘에 앉히고 싶었다랄까요. 그렇기에 늘 말미엔 조금 더 조금 더 하며 붙잡게 되는 아쉬움이 담긴 작업.

‘사건- 그녀와의 첫 만남’

‘독립운동가 김명시 장군’ 그 이름을 처음 조우한 건 2022년 8월 TV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짙막한 5분여 가량의 프로그램 내용은 그녀의 생도 아니고, 독립유공자서훈을 긴 시간 끝에 받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산 여성이야기길’ 에 ‘양성평등사업기금으로 조성된 김명시 장군 벽화’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흰 저고리, 까만 치마의 여인이 왜 장군인지보다 조용한 마을의 테러가 초점인 방송. 그녀의 생보다도 빨갱이라서 그랬다는 - 추후 수소문 돼 밝혀진 범인의辯에 해프닝 정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녀는 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으리라. 방송은 살아 숨 쉬는 사람의 사건 진행을 위해 그녀의 테러는 해프닝 따위인 듯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視線의 변화 - 흰 저고리, 까만 치마. 그녀들을 마주하다’

고작 계집이~ 이라는 소리 하나로도 눌러놓았을 것들이 꽤나 많았을 시절과 인생. 누구보다 고단하였을 그들이 개인보다 더 큰 것을 위한 희생 하다니. 그런 그녀들이 이리도 많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생이 해프닝보다 주목받기가 이리도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긴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녀들을 제대로 보아 달라 이야기 한 줄도 몰랐었습니다. 모르는 게 이토록 많은 줄 그리기 위해 조사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여된 2022년 김명시 장군의 애국장 그리려 작정하기 전엔 몰랐었습니다, 제視線이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얼굴- 展示 로 歷史로 남았으면’

시선의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더욱 관심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마주하게 해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노력이 더욱 애뜻합니다. 역사란 되돌아보고,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발전을 가지는 것이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초상화공모는 ‘얼’을 닮는 脈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녀들을 담아내기 위해 잠시나마 조우했던 것처럼 이러 기회가 확장 되기를 환쟁이의 오지랖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겨울을 닮았고, 그들의 의상은 단조롭지만 누구보다 그녀들은 뜨거웠고 생은 多彩로 왔습니다. 그색 그대로 그날의 그녀를 알게 된 나의 시선이 오늘과 내일의 숨 쉬는 이에게 展示 로 歷史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공모전 참가자들의 소감문

초상화 부문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수상자 김 윤 경님 소감문

나의 그림일지

남산 자락 아래 학교를 다니던 꿈많은 여고생 시절, 고3 국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여러여리한 외모의 학교 선배기도 하셨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셨던 선생님은 ‘이왕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될 운명이라면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면 필리핀처럼 영어라도 잘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다. 1903년 평양에서 개교하여 1938년 3월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불복해 폐교를 하고 1950년 서울 남산자락에서 재건한 100주년이 넘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묘한 배신감으로 바뀐 날이었다.

굴욕적이고 정치적 이해로 체결된 한일 협정 이후 역사의 왜곡과 날조가 판을 치며, 일본을 미워하되 일본인에 대한 터부나 일본제품의 불매에 대해 촌스런 정서를 지닌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 치부하는 신자유주의를 지냈다.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일본의 교활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여전히 작용하고 공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웠다.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의에 눈감는 정부 대신 억압을 당한 이들이 바라보고 기억되는 역사!! 그들의 시선으로 기록된 역사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런 기억의 예술작품이 가지는 힘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소녀상에 대한 예민함으로 일본은 때로는 협박을, 때론 정치 로비를 써가며 막아내려고 애를 쓰는지 헤아려 진다. 우연히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오늘 그들 여기에” 문화예술 공모전을 접하고 여러 여성 운동가의 발자취를 찾던 중 한 여인의 강렬한 눈빛을 접하고, 그의 헌신적인 생애에 깊이 매료되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정성이 있는 사람은 정성으로,” 이 말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여자의 몸으로 임시정부 요원들의 고달픈 망명 생활을 보살핀 정정화 선생의 헌신적인 삶을 따라가 보며 그를 기억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역사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 입술과 강인한 콧날,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강직함을 날카로운 눈동자에 표현해 보았다. 내가 그린 장정화 선생의 그림이 항일독립운동역사의 벽돌 하나 될 수 있길 희망한다.

공모전 참가자들의 소감문

초상화 부문 항일여자청년독립단상 수상자 남 희 민님 소감문

역사를 배우며 알게 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남성이었다.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이들이 남성 뿐이었던 것도 아니며 독립운동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한 것이 남성만이 아님에도. 우연히 발견 하였던 공모전을 통해 알게되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그래서 이 공모전의 초상화는 단순히 나의 그림을 평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눈빛이, 굳센 의지가 담기길 바라며 그렸다.

2022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문화예술공모전 심사위원 명단

랩&독백

-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 임이록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이사장, 목원대 만화예술과 겸임교수, 예장사이버신학 신약학 주임교수
- 이진석 남북역사미술협회 회장, 여성독립운동가 역사화와 유관순열사 및 초상화 제작 전시, 평화철도 집행위원
- 임정희 영농회 사무국장, 워싱턴한인회 살림중창단 단장
- 이은주 시민과 대화 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서대문협의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 김화성 (즈)피앤비 마케팅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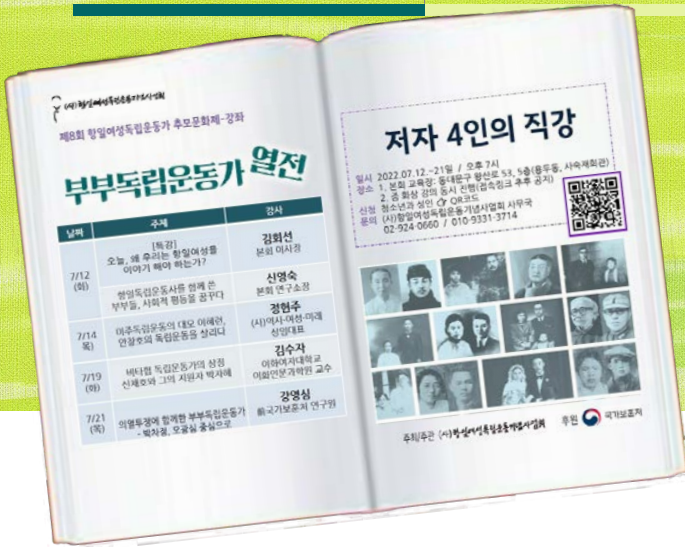
초상화

- 김희선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 임이록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이사장, 목원대 만화예술과 겸임교수, 예장사이버신학 신약학 주임교수
- 이진석 남북역사미술협회 회장, 여성독립운동가 역사화와 유관순열사 및 초상화 제작 전시, 평화철도 집행위원
- 임정희 영농회 사무국장, 워싱턴한인회 살림중창단 단장
- 이은주 시민과 대화 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서대문협의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 김화성 (즈)피앤비 마케팅 대표

UCC

-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 임이록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이사장, 목원대 만화예술과 겸임교수, 예장사이버신학 신약학 주임교수
- 이진석 남북역사미술협회 회장, 여성독립운동가 역사화와 유관순열사 및 초상화 제작 전시, 평화철도 집행위원
- 임정희 영농회 사무국장, 워싱턴한인회 살림중창단 단장
- 이은주 시민과 대화 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서대문협의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 김화성 (즈)피앤비 마케팅 대표





부부독립운동가 열전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기획강좌

2022년 추모문화제 기획강좌는 '부부독립운동가 열전'이라는 주제로 저자 4인의 강좌를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숙재화관 교육장과 온라인 화상강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기획강좌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사)역사여성미래가 2021년 11월 30일 출간한 『부부독립운동가 열전』의 저자들의 강의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양하고 특히,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남편과 더불어 독립 전선에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던가를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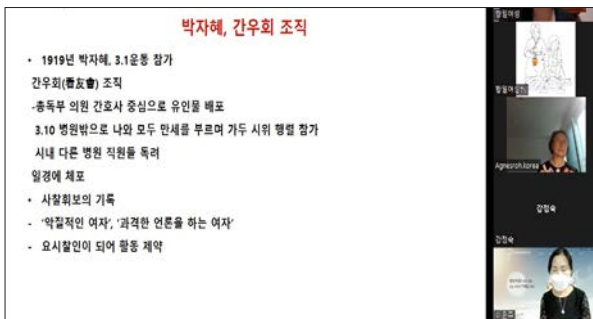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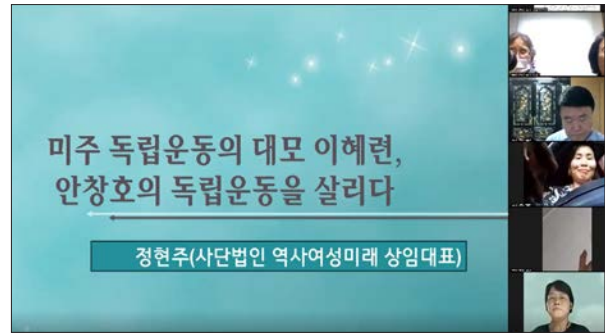


부부독립운동가 열전

| 일시 | 2022년 7월 12일 ~ 7월 21일 (매주 화, 목) 19:00 ~ 21:00

| 장소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온라인 ZOOM동시 진행)

- 특강 “오늘, 왜 우리는 항일여성을 이야기 해야 하는가?” - 김희선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1강 “항일독립운동사를 함께 쓴 부부들, 사회적 평등을 꿈꾸다” - 신영숙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소장
- 2강 “미주독립운동의 대모 이해련, 안창호의 독립운동을 살리다” - 정현주 (사)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 3강 “비타협 독립운동가의 상징 신채호와 그의 지원자 박자혜” - 김수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
- 4강 “의열투쟁에 함께 한 부부독립운동가-박차정, 오광심 중심으로” - 강영심 전국가보훈처 연구원



우봉운도 "명반(命半), 사반(事半)의 박원희여사, 여류운동가 박원희군-최후의 병석을 추억하며"라는 장문의 글로 추모. "1927년 12월 4일! 선달 초생의 주먹같은 함박눈이 회색 하늘 속으로 푸실푸실 떨어지는 이 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슬프고 애처로운 날이었다. 우리의 운동을 위하여 가진 뼈와 피를 다 바쳐오던 동지 박원희 여사가 이 세상을 떠났음이다. 그는 부군 김사국씨를 1년 전에 사별한 뒤 비록 이성애의 세계에서는 고적을 느끼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운동에 대한 굳은 신념과 동지의 사랑 속에서 깨끗한 그의 행진의 걸음을 멈추어 본 적이 없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하여 주더니 우연한 일로 동짓달 보름께 든 겨울감기가 덮쳐서 연래의 쇠약에다가 아주 병세가 두텁게 되었던 중 그날 끝끝내 동무와 사업과 견지도 못하는 어린 딸 하나를 세상에 남기어 두고 영원히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

- 신영숙, <항일독립운동사를 함께 쓴 부부들, 사회적 평등을 꿈꾸다> 강의 내용 중 여성독립운동가 박원희 여사, 박원희군 추모의 글

부부독립운동가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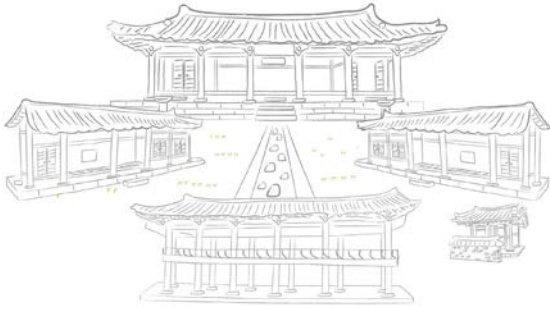
본 강의에서는 부부독립운동가 중 여성에게 초점을 두어 그 활동을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때문에 남성의 활동은 다소 소략하게 정리된 점과 자료부족이란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 서로 간의 사상이나 독립운동론 등의 교류 양상을 찾아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차정이나 오광심은 여성이라서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전통적 남존여비적인 주변환경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선각적인 여성들이었다. 이를테면 박차정은 일신여학교, 광동대학중문과에서 수학하였고, 오광심은 화흥중학에서 수학하였다. 이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졸업 후 받은 혜택을 개인의 성공에 가두지 않고, 배운 것을 독립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되갚는 역할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참된 민족지성의 삶을 보였다. 둘째로 독립운동가를 남편으로 택하여 동지가 되었으며, 남편과 함께 평생 의열투쟁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점에서 위대한 여성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부부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통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민족독립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차정과 오광심은 자녀를 생산하지 않아서 ‘육아나 살림살이 등 여성의 고유영역’에 대한 자료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전선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한 후 비로소 여성들의 투쟁에 나섰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여성들의 헌신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독립운동에 나선 여성들이 감당했던 ‘살림살이, 출산, 육아’ 등을 사적영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민족독립운동이란 공적영역으로 그 외연을 넓혀서 해석해야 비로소 여성독립운동의 실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 강영심, <의열투쟁에 함께 한 부부독립운동가-박차정, 오광심 중심으로> 맺음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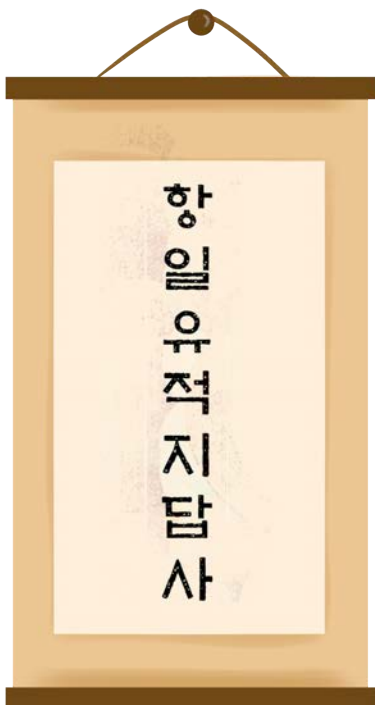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추모문화제

문화유적지 답사

- 항일에서 통일로 -

2022년 문화유적지 답사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관계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10월 19일과 22일, 11월 3일 총 3회에 항일유적지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가 5,000년의 장구한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켜져 왔는지 바로 알고, 이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미래 시대의 주인공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일에서 통일로 1차 답사 일정 (10월 19일)

홍예공원(항일독립운동여성상) ⇒ 윤봉길생가 및 기념관 ⇒ 독립기념관

항일에서 통일로 2차 답사 일정 (10월 22일)

배재어린이공원 (항일독립운동여성상) ⇒ 임진각 ⇒ 국립 6.25납북자기념관
⇒ 연천종합복지관 (항일독립운동여성상) ⇒ 한탄강 주상절리

항일에서 통일로 3차 답사 일정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 백양사 ⇒ 소재원
⇒ 배화여자고등학교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문화유적지 답사 소감문

‘혁명전야’ 속의 내포, 내포치들

이 규 원



2019년 12월 13일, 홍예공원에 '혁명전야,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식을 마치고

비산비아(非山非野)의 땅,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충청도의 산하로 들어서면 아련한 그리움과 싸한 아픔이 명치에서 코끝으로 이어지고 눈자위가 더워진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원분들과 함께 내포신도시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랬다. 가을이 깊어지며 산하의 빛도 깊어진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젊은 한 시절을 살다 죽음에 이른 유관순의, 정정화의 눈빛도 만주의 가을을 닮았을 것 같다.

충남도청 가까이 자리한 '홍예(홍성과 예산의 앞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한다)공원'에 내리자, 맑고 시원한 산공기가 온몸을 감싸왔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용봉산이 홍예공원을 감싸고 충청남도청과 충남도서관을 느긋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2019년, 이 홍예공원 항일독립운동가의 거리에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를 설치할 때도 함께 했던 터라 반갑고 애뜻했다.

'혁명전야' 동상 앞으로는 홍성과 예산, 천안 곳곳 내포가 배출한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 우뚝우뚝 서서 일제강점기 민족의 삶의 자리가 위태롭던 때 그 참담함을 외면하지 않았던 기개를 품고 자리하고 있었다. 그분들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바탕이 되어 독립이 이루어지고 이제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그때 그분들이 바랐던 염원을 실현하며 살고 있는 걸까? 그분들의 마음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늘, 이 물음을 놓치지 않아야 함이 되새긴다. 지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문화유적지 답사 소감문

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정학적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땅을 둘러싼 대(제)국들의 욕망 사이에서 여전히 위태롭기 때문이다.

‘혁명전야’의 뒷배경으로 서 있는 비석에 새겨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살펴보는데 내 안에 고였던 여러 감정이 흘러나왔다. 역사의 발전은 느릿느릿 한두 세대에 이뤄지는 게 아닌 데다 한 사람의 생애는 짧기만 해서 덧없음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많아, 역사는 퇴보하는 듯 보이는 때가 많다. 더구나 시대와 불화하며 삶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시대의 몰이해에 문혀 혼백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지경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잊혀지고 지워지는 긴 세월 속에서도 그 흔적을 놓치지 않으려는 결의가 이어져 왔고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혁명전야’의 동상은 흥예공원에, 배화여고 교정에, 연천의 공공기관 마당에 설치되어서 지금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대전MBC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의 건립은 2019년 2.8 독립선언과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한 것으로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가까이 흥예공원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의 배재어린이공원에 이어 두번째의 건립이었다. 흥예공원에서 행해진 제막식에서, 김희선 이사장님은 "오늘 우리가 세우는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는 항일여성운동가의 숭고한 독립투쟁의 역사를 우리들 마음에 새겨 정의가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고자 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의 상징인 충청남도에서 항일운동여성상 건립 제막 행사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여성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하셨다. 이 작품의 작가인 김서경님은, "이 작품은 혁명의 역사를 현재이자 미래의 소녀가 지켜낸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소녀가 정의로운 의지의 등불을 들고, 오늘의 소녀가 옛 소녀들의 그 의지를 이어받는 행동으로 태극기 인쇄물을 찍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승과 이승으로 나뉘었지만 이 땅의 여자 사람들의 마음이 한뜻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동상을 둘러싸고 그 배경에는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전문과 공식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472명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내포를 비롯한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일관된 신념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유관순 열사와 김복희 열사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문화유적지 답사 소감문

가 그러했고 유명한, 무명의 많은 분들의 행적에서 그런 신념을 잘 느낄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려진 충청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는 25명이라고 한다. 천안 지역 출신으로 만옥금, 한이순, 황금순, 최정철, 유관순, 유관순의 사촌언니인 유예도, 유관순의 어머니인 이소제가 계시고 공주지역에는 김현경, 이은숙, 노예달, 박루이사(박화숙), 노마리아가 계시다. 서천은 김인애, 서산의 최예근, 연기의 정정화, 아산의 이애라, 김복희 한연순을 배출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 충청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한 내면을 품게 되었을까? 독립운동가 거리에 동상으로 서 있는 한용운 스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분들도 불변의 신념으로 살아간 분들이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곳의 지리가 서해바로 뚫려있어 도성인 서울과의 근접성과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중국인들과도 상거래를 하던 데서 우러나온 확 트인 감성도 한몫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지형 지리적 특성이 이 땅 사람들의 의식을 특별하게 형성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조선후기에도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도성에서 퍼져나간 천주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포 곳곳 독립운동가들의 출생지는 한국가톨릭교사들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이곳 사람들 곧 내포치들은 서해바다에서 밀물이 들어오면 부풀어오른 삼교천에 배를 띄워 아산만으로 들어가고 서해바다로 나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양만이였다. 인천 앞바다를 지나 강화에 이르러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조강을 타고 한강으로 들어서 마포 삼개나루와 용산포에 닿으면 그들 내포치들은 서해바다에서 잡은 어물과 내포평야의 미곡을 넘기고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 남대문안 칠패시장과 종루의 육의전에서 도성의 물품은 물론 청나라에서 들어온 물건과 사상을 흡수해서 내포의 곳곳에 쏟아놓았다. 그러면 도성의 것들은 들불처럼 내포치들에게로 번져나가며 일찍 깨인 개명한 사람들이 되어갔다. 천주학이 그런 경로를 거쳐 내포 곳곳에 퍼져나갔고 새로운 물품들이 내포 곳곳으로 흘러들었다. 조선후기, 조선정부와 양반들의 치세를 허무는 평등의 천주학이 흘러간 곳곳에서 이후로는 동학이 흘러들었고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홍예공원을 둘러본 후 점심을 먹고 예산군 덕산면의 가야산 자락에 위치한 윤봉길의사의 생가와 기념관으로 향했다. 가야산의 선선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자리였다. 먼저 그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 충의사(忠義司)에 들러 향불을 사르고 젊은 너무나 젊은 초상화를 대하며 감정이 울컥했다. 1908년생으로 태어나 1932년에 죽음을 맞았으니 25살 청춘의 정점에서 생을 마감한 분이다. 사당의 초상화 속에서까지 젊음의 기운이 뿜어나왔다. 그의 집에는 젊은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충과 의, 두 신념을 모아 독립운동으로 나아가며 윤의사는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는다는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문장은 그대로 그의 유서가 되었다.

중국으로 간 윤의사는 김구선생을 만나 한인애국단에 입단하는데 당시 세계정세의 흐름은 일본 군국주의의 기세를 누를 자가 없는 정황이었다. 상하이의 신문에 곧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인 천장절인 1932년 4월 29일에 홍커우공원에서 전승축하기념식을 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를 접한 임시정부에서는 김구의 제안에 따라 폭탄투척자사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문화유적지 답사 소감문

를 결정했다. 이 거사에 윤의사가 자원했고 그날의 거사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침체상태였다고 한다. 홍커우공원의 거사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중국정부의 지원금이 들어오는 등 활로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1909년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쏜 안중근의사의 거사와 1932년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벌어진 윤봉길의사의 거사를 보며 특히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기개에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미흡하나마 대한민국의 독립은 지진부진 더 남루한 상태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윤의사는 의거현장에서 잡혀 일본 본토로 건너가서 일본군의 군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전시실에는 보물 제568호로 지정된 윤봉길 의사가 청도와 상해에서 어머님께 보낸 편지 2편도 전시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올림'이라고 적힌 편지에서 윤의사는,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떠난다는 결심이였다."라고 쓰고 있다. 이 편지를 통해서도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다. 기념관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생가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그 집에서 윤의사는 '농민독본'을 만들어 무지한 농민들과 눈과 가슴을 열어주려 애썼음을 알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25년의 짧은 생애 동안 탄탄한 인격체로 살아간 모습에 신비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옛사람들은 삶을 충실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밀려들었다. 생가 모퉁이에 모과나무에 노란 모과가 주렁주렁 열려서 가을별을 받고 있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의 회원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든든하다. 직간접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분들의 일화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인 "혁명전야"가 과거의 소녀가 지금의 소녀에게 독립운동의 의지를 전해주는 형상으로 표현되었듯이 지금의 소녀 지금의 젊은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과거는 흘러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재를 축조하고 있는 중심 에너지이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 가기에 더욱 깊은 눈으로 지켜보며 함께 해야 하는 지평이다.



윤봉길 의사 처형장면 기록 사진 (CG 부분 수정). 일본 육군의 비밀보고서인 만밀대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 학술심포지엄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 재조명



2022년 여성독립운동의 학술심포지엄은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 재조명”이라는 주제하에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을 지역별로 나누어 비교 검토,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국내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경기)부터 강원도, 광주 전남, 충청, 경북, 그리고 부산(경남) 지역의 여성독립운동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별 여성독립운동을 비교 분석, 고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한국 근대사 안에 항일여성독립운동사의 자리매김을 더 확고하게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동시에 지역에서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과 활동이 오늘의 한국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에게도 훌륭한 역사의 거울이 되었다.



| 일시 | 2022년 10월 28일 (금) 10시~17시 30분
| 장소 |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구분	내용
주최	한국여성독립운동학회
주최자	김영희
주최처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기간	2022년 10월 28일(금) 10:00~17:30
주최대상	여성독립운동 관련 학계,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주최목적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을 지역별로 비교 검토, 재조명하여 한국여성독립운동사의 자리매김을 도모하고, 한국 근대사 안에 항일여성독립운동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
주최내용	1. 11. 민족주의 개념 독립운동의 전개 (10:00~11:00) 2.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 재조명 (지역별 비교검토) (11:00~17:30)
주최장소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인원	약 100명
주최비용	무료
주최문의	02-924-0660
주최문의처	한국여성독립운동학회
주최문의인원	김영희
주최문의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최문의장소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문의방법	전화, 이메일, 방문
주최문의이메일	kwid@kwid.or.kr
주최문의주소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 연천군 종합복지관
- 서울여대 초상화 전시
- 고양시 능곡쌀롱

연천군 종합복지관 초상화 전시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2022년 8월 11일에 열린 제8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기념식과 더불어 연천군 종합복지관 로비에서 초상화 전시를 열었습니다.

연천 출신의 여성독립운동가 소은명, 소은숙 자매를 기리는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식에 맞춰 삽화를 제작하여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꽃다운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피와 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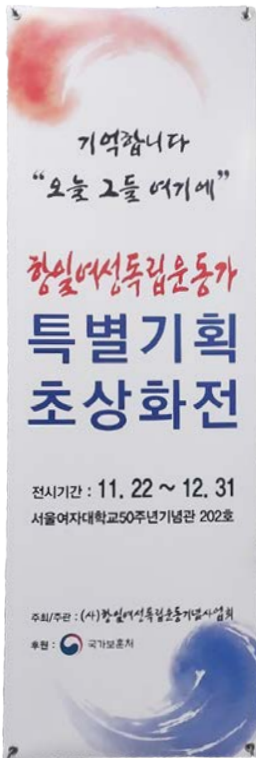
서울여대 초상화 전시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11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토)까지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전'이 열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소중한 다짐을 되새기며, 청년들에게 과연 어떻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5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일제강점기 항일여성들의 목숨 바친 희생은 곧 우리의 현재이고 역사라는 취지가 그저 글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래 보았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항일여성독립운동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양시 능곡쌀롱 초상화 전시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12월 26일(월)부터 23년 1월 31일(화)까지 고양시 소재 능곡쌀롱에서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오늘 그들 여기에’ 가 열렸습니다.

총 52점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었으며, 비록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독립운동가의 아내·어머니·동지로서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역할에 충실하였고 외형상으로 독립전쟁사에서 크게 빛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업적은 간과할 수 없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알려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항일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했던 구국투쟁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얼마나 큰 용기와 자신감으로 대처했을까 하는 물음을 갖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며, 그들의 피어린 삶을 잊지 않고 후세대인 우리들이 지켜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명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소은명·소은숙 자매 삽화 제작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소은명·소은숙 자매 삽화 제작



2022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훈 추서자

2022년 추서자 63명 / 2022년까지 누적 추서자 607명

순번	성명	한자명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1	강묘례	姜卯禮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광주
2	고명신	高明信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해주
3	고유순	高有順	국내항일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대동
4	곽명숙	곽명숙	미주방면	2022	건국포장	사망	경상남도 미상
5	곽복녀	郭福女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북도 성진
6	곽영숙	郭榮淑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영월
7	국귀선	鞠貴善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담양
8	김건옥	金鍵玉	광복군	2022	애족장	미상	미상
9	김공도	金公道	미주방면	2022	건국포장	미상	경상남도 마산
10	김명시	金命時	중국방면	2022	애국장	사망	경상남도 마산
11	김복순	미상	미주방면	2022	건국포장	미상	미상
12	김복순	金福順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광주
13	김세덕	金世德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경주
14	김소남	金小南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해주
15	김영도	金永道	미주방면	2022	대통령표창	사망	평안북도 정주
16	김영산홍	金映山紅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 통영
17	김예식	金禮植	3.1운동	2022	건국포장	미상	경기도 개성
18	김정희	金正希	3.1운동	2022	애족장	미상	경상북도 영천
19	김차순	김차순	미주방면	2022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20	나성순	羅性順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나주
21	노간란	盧干蘭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광주
22	데이지 호킹		독립운동지원	2022	건국포장	사망	외국 호주
23	마가렛 샌더먼데이비스		독립운동지원	2022	애족장	사망	외국 호주
24	박경희	朴慶姬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25	박보계	朴寶香	국내항일	2022	대통령표창	사망	경상남도 진주
26	박보광	박보광	미주방면	2022	건국포장	사망	미상
27	박봉매	朴鳳梅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해남
28	박봉순	朴奉旬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광주
29	박찬묘	朴贊妙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북도 금산
30	백인숙	白仁淑	미주방면	2022	건국포장	사망	황해도 기타
31	송기순	宋基順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장연



순번	성명	한자명	운동계열	포상년도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32	신명조	申明朝	국내항일	2022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33	안미생	安美生	임시정부	2022	건국포장	사망	황해도 신천
34	안수산	安秀山	미주방면	2022	대통령표창	사망	평안남도 강서
35	안임순	安壬順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남도 함주
36	윤보민	尹寶民	중국방면	2022	건국포장	미상	황해도 봉산
37	윤창배	尹昌培	미주방면	2022	건국포장	미상	경상남도 부산
38	이경임	李敬姪	만주방면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북도 자성
39	이묘옥	李妙玉	미주방면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 창원
40	이보비	李寶毗	광복군	2022	애족장	미상	미상
41	이복점	李卜点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무안
42	이사벨라멘지스		독립운동지원	2022	건국포장	사망	외국 호주
43	이선희	李仙熙	미주방면	2022	건국포장	사망	미상
44	이시분	李時分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45	이심동	李深洞	국내항일	2022	대통령표창	사망	경상북도 청도
46	이옥	李玉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함평
47	이옥금	李玉今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함평
48	이은득	李恩得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사망	경기도 개성
49	이음전	李音田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대구
50	이택춘	李澤春	국내항일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함평
51	임해득	林海得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남도 부여
52	장재련	莊在連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경산
53	전덕제	全德濟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남도 청양
54	전의영	全義英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광주
55	정봉득	鄭鳳得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 창원
56	정봉은	鄭奉恩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영천
57	조애영	趙愛泳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영양
58	천선희	千善姬	3.1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상주
59	천연희	千年喜	미주방면	2022	대통령표창	사망	경상남도 진주
60	최정옥	崔貞玉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북도 경원
61	하운학	河雲鶴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원주
62	현모란	玄某蘭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여주
63	홍혜경	洪惠卿	학생운동	2022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북도 부령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의 나아갈 길”



2023년도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기간
기념 사업	제9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 화제 〈오늘 그들 여기에〉	2023 문화예술 공모전	4~5월부터 홍보 및 접수 시작
		815 기념식 및 공모전 시상식	8월 15일
		항일여성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8월 말~9월
		초상화 및 수형자기록카드 전시	수시
	미국 L.A 초상화, 역사화 전시 계획		10월
연구 · 교육	학술심포지엄		4월 ~ 5월
	기획강좌 및 강의		미정
출판 · 홍보	학술심포지엄 자료집을 기초로 한 문헌 발간		10월~12월
	이사장 회고록 영상 작업 / 녹취		2월 : 영상촬영 3월 : 문서화 작업
	유튜브 채널 항일여성TV 운영		상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는**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개 인

강성종	강영준	강예진	강정숙	강정홍	고수민	고희주	곽미경	곽보미	곽유진	곽주현	권리나	권오영
권태순	김가현	김경미	김경순	김경옥	김광준	김귀례	김명주	김미성	김병국	김병수	김보영	김복순
김삼열	김삼웅	김서경	김선현	김성태	김성훈	김수미	김숙정	김순단	김애영	김연옥	김영섭	김영숙
김영희	김옥미	김옥순	김옥이	김용진	김우진	김운채	김윤경	김윤숙	김일옥	김종도	김종진	김지희
김진현	김진후	김찬수	김창한	김태관	김하영	김행자	김행자	김현숙	김현지	김현태	김형목	김혜라
김혜련	김혜정	김혜지	김호근	김희선	나영우	나유진	남궁련	남상만	남성현	남하윤	노다니엘	노명희
노영숙	노우숙	노은미	도승이	류효안	마완근	마혜민	맹준재	명진	문병호	문은영	문인숙	문인철
민향선	박가은	박경철	박국호	박금란	박나영	박남식	박마리	박민수	박민지	박삼규	박선우영	박성현
박소리	박소연	박소울	박수민	박승준	박영순	박윤학	박원홍	박유림	박윤옥	박은희	박재홍	박정아
박정철	박정희	박제성	박주영	박준영	박진호	박창식	박태균	박하은	박해숙	박현지	박혜진	박호현
박효은	방국진	방승환	방지영	배다빈	배성호	배우진	백소망	백정애	서병남	서쌍원	서영교	서인아
서찬휘	서하민	설훈	성세정	성현진	손덕수	손민성	손수연	손윤	손태수	손희영	송보경	송아람
송주은	송현석	수산나	신경호	신명화	신상균	신수정	신영숙	신유진	신은영	신재남	신재민	신종근
신혜수	심소라	심용식	안광진	안기현	안성례	안재준	안혜영	안혁하	안희정	양동해	양미강	양혜경
양시영	양호준	오건호	오경민	오나경	오세홍	오수민	오여주	오화자	오화중	유승희	유인경	유창우
양혜경	윤인지	윤현식	이경순	이규영	이규원	이기은	이길용	이문석	이미경	이미희	이민석	이민재
유하영	이보나	이상혁	이선주	이성구	이성철	이소라	이수민	이승현	이승환	이연수	이영훈	이원표
이민주	이유찬	이은경	이은주	이일영	이재희	이정기	이정숙	이정원	이정은	이정환	이주한	이지원
이원표	이진석	이진숙	이찬희	이창민	이창현	이항중	이현민	이현주	이혜경	이효식	임동건	임수빈
이진규	임쌍금	임연선	임은순	임정희	임주희	임현형	장경훈	장병화	장수인	장해연	장현호	전경미
임순덕	전형진	정간하	정나영	정동익	정민우	정보영	정범철	정성아	정수진	정연진	정영훈	정용설
전진우	정원채	정유경	정택수	정현주	정희영	조수민	조신호	조윤서	조은비	조정식	조휘숙	지우현
정원빈	차영조	차우수	차종찬	천신애	천정배	최광호	최병일	최선량	최성자	최성주	최순례	최영환
진숙희	최윤정	최은규	최재호	최정순	최준영	최진섭	최현철	최희라	탁은지	한건희	한의성	함진
최우영	홍미영	홍윤기	홍정석	홍충선	황기흠	황수환	황은혜	황인술	황정원	황학수	양영숙	현명우

단체 / 기업 회원

광복회 김예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흥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의사산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재출판사름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주)에너지파트너 지광회 통
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어성의전화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헤림교회 화윤차문화협동조합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와 함께하는 사람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회원분들의 정성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 회원가입서로 연결됩니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TEL. 02-924-0660

E-mail. herstory@herstorykorea.org

Youtube. [youtube.com/c/항일여성TV](https://www.youtube.com/c/항일여성TV)

Homepage. <http://www.herstorykorea.org>

* 본회 홈페이지에서 <항일여성> 과월호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